

일제강점기 소설에 나온 갯주

〇 〇

계속은 금 다시에 어느 사립여학교의 학생이었다. 하루 아침에 일이 일어나자 그는 팔을 걷고 가두(街頭)로 나서서 각 여학교와 연락을 취하고 남자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민첩하게 활동을 하다가 육체의 자유를 잃은 몸이 되었다. 그 뒤에 감옥으로 넘어가서 여러달 동안 고초를 겪다가 나 왔기 때문에 여류 투사로서 경향에 이름이 났다. 그때에 각 민간신문에서는 최계속의 사진을 이단으로 커다랗게 내고 약력까지 실었다. 그래서 남녀를 물론하고 그 당시에 학생들은 신문을 펴들고 『에에키 조선의 짚다아크가 났군.』 하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아니야, 로오자 룩센부룩을 외판치겠는 걸.』 하고는 제멋대로 품평하듯 하며 지껄었다. 그러자 최계속 이는 벌써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하나도 아니요 둘이나 된다. 삼각연애가 얼크러져서 죽을둥 살둥 하는 판이란다—이제나 저제나 남의 말에는, 더군다나 젊은 여자의 일이라면 머리를 싸매고 덤비는 축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런 소문이 옮겨다니는 동안에 「최계속」이란 이름이 슬그머니 유명해졌던 것이다.

-심훈, 영원의 미소, 1933년